

●  
그린에너지 강국 향해 '달 올렸다'

- 세부 실천계획 담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전략로드맵」 마련 -
- '12년까지 6조원 투자, 삼성, 현대 등 국내 대표기업 73개 참여 -
- 현재 세계최고 대비 50~85%인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 -

□ 오는 2012년까지 민·관 합동 총 6조원이 투입되고, 삼성·현대·LG 등 국내 대표기업 73개가 참여하는 '그린에너지산업 실행전략'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 지식경제부는 1월 22일 제2차관을 주재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로드맵(안)」을 심의하였다.  
\* 추진위원회(1.22, 11:20~13:00, 교육문화회관) : 지경부 제2차관을 비롯, 그린에너지 관련 대표기업 및 관련 전문가 50여명 참석

○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임석下에 발표한 바 있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준비해왔으며,

- 신성장동력을 포함하는 그린에너지 15대 유망분야를 대상으로 전략품목 58개와 핵심기술 207개를 선정하였다.

-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적인 기술개발 방향과 R&D 이후 상용화에 이르는 실행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 그린에너지 15대 유망분야

청정에너지생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원자력
화석연료 청정화	청정연료, CCS(CO2 포집·저장)
효율 향상	전력I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펌프, 초전도, 차량용배터리, 에너지건물, LED조명

□ 이를 통해 현재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 대비 50~85%에 불과한 그린에너지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의 상당수(67.4%)는 단기 활용에 치중한 상용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나,

○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현재 개발중인 기술들을 체계화하여 '12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키고,

- IT, 조선, 가전 등 에너지 연관 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30년까지 선진국을 넘어선다는 전략이다.

□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내기업의 투자방향에 기반하여 전략품목과 핵심기술을 선정

○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필요기술을 단순히 나열하는 기존의 R&D 로드맵 수립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선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이를 위해 국내외 경쟁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시장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기업의 투자동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한 것이다.

- 시장형성이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15대 유망기술별 로장·단기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대형급 핵심기술을 최종 도출하였다.

\* 단기 : 정부지원 시 '12년까지 성장동력화 가능

\* 장기 : 단기간에 시장형성이 어려워 원천기술 획득 필요 (~'30년까지)

○ 또한, 기술별 개발방식을 민간 단독, 민·관 공동, 정부지원 등 명확히 설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육성 본격 추진

- 신성장동력 펀드 '09년 2,500억원 조성·운영, 해양 바이오 연료 사업추진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회사 설립 등 신성장동력 190개 이행과제 추진 -

□ 1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경제성장의 비전달

성을 위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심의·확정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는 소관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소관 10개 신성장동력 세부 실행방안은 작년 9월 신성장동력기획단과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에서 정부에 제안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인 헬스케어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화콘텐츠를 제외한 신성장동력의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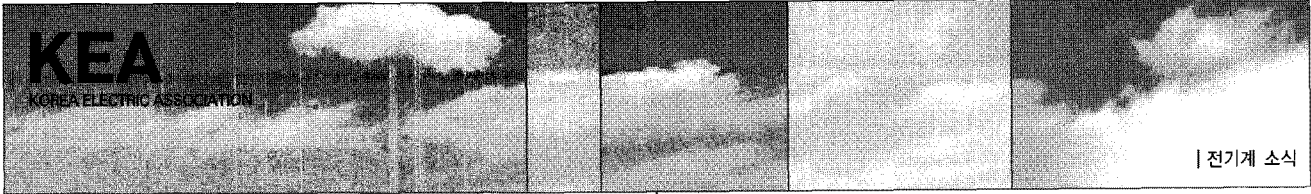
〈범부처 신성장동력 및 지경부 소관 신성장동력〉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지경부 주관 및 공동주관)
녹색기술 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 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 올해 부터 지식경제부는 소관 신성장동력 육성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 추진체계〉

□ 우선 장관주재 “신성장동력 총괄 점검회의”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



○ “신성장동력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실행계획을 지속보완

□ R&D 진행상황 점검, 세부과제별 진도분석 등 실무전담을 위해 '09년 중 통합 출범하는 연구관리기관에 “신성장동력 사업관리단” 설치를 추진

\*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은 R&D지원기관 개편계획에 맞춰 최종 확정

〈지식경제부 투자계획〉

□ 지식경제부는 선제적인 정부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해 나갈 계획이며 소관 10개 신성장동력 분야 육성을 위해 향후 5년('09~'13)간 총 7.3조원을 투자하고 90.5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등 10대 분야에 민관합동 총 97.8조원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마련하여 실행

○ '09년에는 연구개발에 약 8,500억원, 비 R&D 분야에 4,500억원 등 총 1.3조원을 10개 신성장동력에 투자할 계획

〈핵심 이행과제〉

□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육성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공동지원과제, 법제도개선, 신시장창출, 산업기반확충, 핵심원천기술개발 등 총 190개 이행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행과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

□ (공동지원과제)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계획 수립, 세무조사 면제방안 추진,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운용 등 신성장동력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재부, 국세청, 조달청, 중기청 등 정부부처 합동추진과제와 함께 민간투자기관, 시중은행 등 민간과의 공동추진 과제도 포함

\* 시중은행의 신성장동력분야 기업 우대 금융상품 설계 지원 등

○ 신성장동력 펀드의 경우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09년에는 2,5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전체 조성 규모는 2013년까지 최대 3조원 범위 내에서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 (법제도 개선과제)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를 결정짓는 핵심법제도 개선과 함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법제도 상의 인센티브 강화 과제 등을 추진

\* 바이오 에탄올·부탄올에 대한 조세감면, LED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등

□ (신시장 창출과제) 신성장동력 제품의 초기시장 창출과 기존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적용 및 국책사업 연계, 초기확산애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해 나갈 계획

□ (법제도 개선과제)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를 결정짓는

핵심법제도 개선과 함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법제도 상의 인센티브 강화 과제 등을 추진

\* 바이오 에탄올·부탄올에 대한 조세감면, LED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등

□ (신시장 창출과제) 신성장동력 제품의 초기시장 창출과 기존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적용 및 국책사업 연계, 초기확산으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해 나갈 계획

\* 그린홈 100만호 사업, RFID/USN, 로봇 등에 대한 보급·확산사업 등

□ (산업기반 확충과제) 공유기반시설 구축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인력양성, 특허 및 표준화 기반강화, 실증기반 확보, 사업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

○ RFID/USN, LED클러스터 및 대규모 로봇수요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예산사업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

○ 특히 우리가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유래 바이오 연료의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 및 모멘텀 확보 추진

\* 해양바이오연료 연구소기업 설립 관련 세부자료 붙임 참조

□ (핵심 원천기술개발과제) 신성장동력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기반

으로 추진

○ 통합기술청사진을 통해 단계별 기술개발 비전을 도출하고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신성장동력 특성 및 기술개발 단계를 고려한 전략 R&D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 추진

○ 이와 함께 '09년 현재 51% 수준인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비중을 '13년까지 60%로 상향하여 선택과 집중도를 높여 나갈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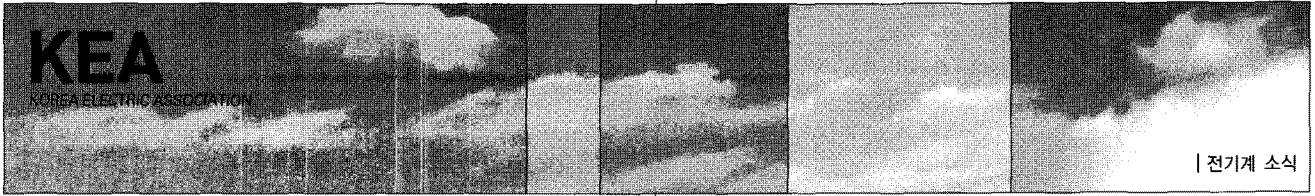
□ (중소기업 지원과제)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 중소기업 사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대상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중소기업 공통인프라 구축, 대중소상생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및 신성장동력분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 범위 및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향후 계획〉

□ '09년은 신성장동력 육성이 본격 추진되는 첫해인 만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추진기조를 산업계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며



○ 지식경제부는 금번 마련한 17개 범부처 신성장동력중 10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교한 실행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이후 우리경제와 산업의 위상을 한단계 이상 도약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휴일, 심야에도 전기요금 납부 가능

- 韓電, 모바일 청구납부제도 시행 -
- 연간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

□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2009년 1월 22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는 전기요금 모바일청구납부제도를 시행한다.

○ 모바일청구납부제도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기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상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를 하거나, 바코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 한전은 모바일청구납부제도 시행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는 물론 청구·수납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객은 이 제도를 통해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편리하게 전기요금 청구내역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한전은 신속하게 요금을 청구하고 실시간으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수납비용도 절감된다.

※ 전체 청구건수의 5%(약 100만건) 모바일청구납부 전환 시 기존 청구서 재발행비용 절감 등 연간 약 50억원 비용 절감

또한, 모바일 청구건수 만큼 종이자원이 절약되어 환경보호 효과도 있다.

□ 모바일청구납부 희망 고객은 관할 한국전력 지점이나 고객센터(☎123),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을 통해 회원 가입 후 모바일청구를 신청하면 휴대전화로 청구내역을 조회하여 요금납부를 할 수 있으며 200원의 요금할인도 받는다.

○ 현재는 우선 우리은행과 웨미리마트만 전기요금 모바일 납부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으나 점차 수납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중점 프로젝트 발표'

- KOTRA에 그린통상 지원단 설치,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산 풍력발전기 26기 착공, 수소연료전지 일반가정 최초 보급, 4대강에 소수력발전소 8개 설치,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등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신재생에너지업계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09.1.30 17:00~19:30,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11대 중점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중점 프로젝트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08.9.11)의 후속조치로 주요내용을 살폈다.

○ 우선 KOTRA내에 그린통상 지원단을 설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총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또한, 동북아 최대규모의 Renewable Korea 국제전시회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펀드도 금년내 조성한다.

○ 이를 통해, 현재 4개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수출 기업(연 수출액 1억불 이상)을 '12년까지 1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대부분이 외산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산풍력발전기 보급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 이에 따라, '09년에는 안산 누에섬, 인제·영월 등에 총 26기(24MW)의 국산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새만금에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40MW)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실시한다.

□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품목과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총 600억 원 규모의 전략기술개발과제를 금년 상반기내에 선정 완료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조기상용화를 위한 파일럿 플랜트 건설을 올해 추진('13년 완공)하고 대학의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 총 10개의 원천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게 된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초기 시장창출이 중요한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전기 및 열원으로 사용하는 그린홈 1만 6천호를 올해안에 보급하고 가정용 연료전지도 일반가정에 최초 시범보급(20대)함으로써 관련수요를 촉진시킬 예정이다.

○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4대강에 8개 소수력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국토재정비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신재생에너지업계는 '09년에 총 3.1조원의 투자('08년 1.9조원, 66% 증), 3,200여명의 신규 고용, 22억불의 수출('08년 13억불, 72% 증) 목표를 제시하였다.